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이해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

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운몽으로 증명했다"며 "갑비갑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위대하고 큰일일수록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민주당 '당원의 날' 축하... "큰일 혼자서 못해, 당원동지들 앞장서달라

정청래 "개혁·민생·당원주권 챙길 것...李정부 성공 위해 총진군"

李대통령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평당원 902명 '민주대상' 수상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100결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께서 앞장서달라. 더욱 단단한 '원팀'이 돼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원 동지들의 가치있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 이 나라의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5천200만 주권자의 총지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 하기에 앞서 "대통령께서 너무 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축사에서 스스로를 "20년 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으로 소개하며 "오늘같이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를 빛내준 당원 여러분께 한 사람의 민주 당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민주당은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당원의 손을 잡고 반헌법세력·내

란세력을 청산하고 반드시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다시 올곧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이재명을 지켜준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이 대통령 보유 국가"라며 "민주당은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당원 주권은 당원 주권대로 모두 빠짐 없이 챙겨서 여러분과 함께 어깨를 걸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총진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100결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함께 걷는 한걸음"이라며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더 단단한 원팀이 돼서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축사에 이어 당원 축하, 민주당 70년사 편찬 경과보고 및 책 전달식, 민주대상(대상 및 부문별 대상) 시상식, 문화 공연 등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민주대상을 사회통합·사회공헌·민주동맹·민주공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당원만을 대상으로 수상자(902명)를 선정했다.

이날 당원의 날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아 민주당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다.

정 대표는 "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해 "1년 전 오늘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이라며 "민주당의 잔치날이자 민주주의 진치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가 출범했고 국민의 많은 성원 속에 순항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주권시대에 맞게 결코 멈출 수 없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을 열기 위해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봉 기자

## "2026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 전망" 세금이 변수

임주물량 감소·금리 인하 등 상승 요인...규제 확대로 전세도 불안

양도세 중과·보유세 개편 등 현실화 관련...주식·코인 금융자산 유입도 변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서울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조강력 규제들이 무색하게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다른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2026년에도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의 집값은 계속해서 강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와 여당이 수면 아래로 내려놓은

세제 개편이 실제 현실화할 경우 주택 시장의 메가톤급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2026년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전망은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전국 기준으로 보합 내지 하락이 예상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 남짓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내년 역시 서울 집중 현상이 이어지며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시중의 유동자금이 '쏟아져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리며 서울 집중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급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집값 상승 전망의 근거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천가구

에 내년에는 21만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천684가구에 서 내년에는 2만9천887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 정부가 9·7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공급대책도 예고했지만 실제 주택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장시간 이 걸리는 만큼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10·15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매물이 감소하고, 매수세도 위축되면서 2026년도 매매 거래는 부진할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은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내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올해 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는 만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주택 가격은 소형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대형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소형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이 1위"라며 "수도권은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내년도 소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2026년에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박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2026년 상승 여력은 둔화할 것"이라며 "이에 비해 최근 조짐을 보이는 지방 아파트값 '갭(격차) 메우기' 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토지 거래허가구역내 갭신 계약 증가로 신규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유입을 희망하는 수요들로 인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셋값 강세와 신규 전세 물건 감소로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심귀영 기자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이언석 의장

고영한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임성명 의원

윤영희 의원

고심미 의원

2025년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